

**즉시 발표:** 2011년 11월 10일

CUOMO 주지사, 취업 자격 갖춘 뉴욕주 귀환 참전용사 돕는 "경험이 중요하다" 캠페인 시작 개혁은 참전용사들의 군사훈련이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보장할 것

주지사, 군인들에 영향 미치는 문제의 보다 나은 해결을 위해 NYS 귀환 참전용사 및 그(Council of Returning Veterans and Their Families)가족을 위한 혐의회 확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참전용사들이 민간 노동력으로 전환할 때 그들의 값지고 전문적인 군사 경험을 인정받도록 하는 새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주지사의 "경험이 중요하다" 캠페인은 군사기술이 용이하게 공공 및 개인 부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Cuomo 주지사는 또 주의 귀환 참전용사 및 그 가족을 위한 협의회를 확대하여 이 협의회로 하여금 군사 경험을 민간 노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좀더 많은 수단을 찾아내는 과제를 맡겼다고 밝혔다.

참전 용사들은 대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수요가 많은 전문 기술을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민간인으로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 자격증, 학위, 증명서 등을 따려 할 경우, 흔히 그들의 훈련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주 정부 단체들은 이제 주지사의 "경험이 중요하다" 캠페인을 통해 뉴욕주에서 참전 용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훈련을 좀더 잘 인정해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Cuomo 주지사는 "참전용사들이 뉴욕주로 귀환함에 따라, 우리는 그들이 민간인 생활로 돌아오는 과정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라며 "이것이 바로 '경험이 중요하다' 캠페인을 통해 하는 일이며 새롭게 다시 활성화 된 귀환 참전용사 및 그 가족을 위한 협의회가이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캠페인을 통해 참전용사들이 그들의 군사훈련에 대해 응당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도록 하고, 주 정부가 그들을 위해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 캠페인의 취지를 밝혔다.

주지사는 "경험이 중요하다" 캠페인의 첫 단계로서, 군인들이 민간인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군대 경험을 알맞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일련의 뉴욕주 면허 및 고등교육 제도를 개혁한다고 밝혔다.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과 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은 각각 "경험이 중요하다" 프로그램을 시작, 군사 훈련에 대해 학점을 부여하는 과정을 개선하게 된다. 두 학교 모두 참전용사들과 현역 군인들의 지원서를 별도로 표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참전용사들이 이전의 군사 훈련 및 수업 활동에 대해 칼리지 학점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집중적인 지도를 하게 된다.
- 자동차 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은 군복무 중 트럭이나 중장비 운전 경험을 쌓은 군인들에게 도로주행 시험을 면제해 줌으로써 보다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뉴욕주의 1종 운전면허를 획득하도록 해주게 된다.
- 한편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은 군대에서의 위생병 훈련 및 경험이 재택 건강보조원 또는 요양시설 건강보조원 자격증 취득시, 현재 응급 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산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추가-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의 군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주지사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참전용사들을 위한 주정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조직되도록 돕는, 정부 단체와 민간인들로 구성된 그룹인 귀환 참전용사 및 그 가족을 위한 협의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 협의회는 재향군인과(Division of Veterans' Affairs) 과장, 군사과 (Division of Military and Naval Affairs) 부관참모,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 국장, 노동국(Department of Labor) 국장,

정신건강국(Office of Mental Health) 국장, 알코올 중독 및 약물남용국(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국장,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에는 주지사가 임명한 두명의 추가 회원도 포함되어 있다.

Cuomo 주지사는 참전용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주 정부 단체들 및 참전용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경험이 있는 민간인들을 추가하기 위해 이 협의회를 확대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협의회에 추가되게 된다.

- 주택 및 지역사회 재개발국(Homes and Community Renewal) 국장 귀환하는 참전용사들의 주택 수요 및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돕기 위함.
- 주 교육국(State Education Department) 국장 군대에서의 전문성을 민간인 직업에서 인정해 주기 위함.
- 고등교육 서비스 공사 (Higher Education Services Corporation) 사장 장학금 및 기타 고등교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도와주기 위함.
- 경제발전국(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국장
- 고령사회정책과(Office for the Aging) 과장
- 참전용사들에게 행동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의 대표
- 참전용사들에게 약물중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의 대표
- 참전용사 문제 전문 학자

주지사는 협의회에게 주 정부 기관 전체에 걸친 작업을 통해, 특히 면허 교부 및 교육 학점 프로그램에서, 주정부가 군사 훈련과 경험을 좀더 인정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하라는 과제를 부여했다.

뉴욕주 부관참모 Patrick Murphy 소장은 "Cuomo 주지사의 '경험이 중요하다' 캠페인은 우리 참전용사들의 전문적 훈련과 독특한 기능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더욱이, 주지사의 귀환 참전용사 및 그 가족을 위한 협의회 재활성화 및 확대를 위한 행동들은 우리의 군인들에 대한 그의 헌신을 더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재향군인과 과장 대행 Bill Kraus는 "우리의 용감한 남녀들이 그들의 획득한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이상식적 접근에 대해 주지사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군인들은 이 새로운 캠페인을 통해 보다 좋은 보수의 직업을 찾기 위한 준비를 더 잘 갖추고 민간인으로 복귀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SUNY 총장 Nancy L. Zimpher는 "이것은 귀환하는 참전용사들이 그들이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동안 획득한 공로에 대한 지극히 정당한 보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경험이 중요하다' 캠페인을 시작한 주지사에게 갈채를 보냅니다. 참전용사들이 민간인이 되면서 우리 주의 노동시장에 복귀할 충분한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SUNY는 Cuomo 주지사와 파트너 관계를 통해 모든 참전용사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더 나은 직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라며 이 캠페인을 환영했다.

CUNY 총장 Matthew Goldstein도, "CUNY가 Cuomo 주지사의 '경험이 중요하다' 캠페인에 참여하여 뉴욕주의 참전용사들이 군사 훈련을 통해 얻은 학점을 인정해주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시의적절한 이니셔티브는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이며 CUNY는 이 일에 한 몫을 하게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했다.